

현대모비스, 글로벌 공략 청신호... 수주·투자유치 '순항'

핵심부품사업 분야 85.7억弗 수주 북미 신규거점 투자금 9.4억弗 확보 "전동화 부품 중장기 성장 동력 확보"

현대모비스가 글로벌 완성차 시장 공략을 위한 영토 확장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미래 모빌리티 기술 경쟁력을 앞세워 현대차그룹을 비롯해 폭스바겐과 벤츠, GM 등 주요 고객사의 수주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올해 초 공격적으로 세웠던 수주 목표 금액도 훌쩍 넘어서며 글로벌 시장 공략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이를 바탕으로 현대모비스는 해외 투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 내며 글로벌 시장 도약의 발판을 다지고 있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올해 3분기 현대차그룹 계열사 외 글로벌 고객사를 대상으로 한 핵심 부품사업 분야에서 85



| 구분 | 지역 | 생산제품 | |
|----|-----|--------------|--------------------|
| 국내 | 운영중 | 울산, 충주, 대구 등 | 배터리시스템(BSA), PE시스템 |
| | 구축중 | 동충주 | 배터리시스템(BSA) |
| 해외 | 운영중 | 중국, 체코 등 | 배터리시스템(BSA) |
| | 구축중 | 미국, 인도네시아 | 배터리시스템(BSA), PE시스템 |

억7000만달러(한화 약 11조6000억원)의 금액을 수주했다. 올해 초 공격적으로 세웠던 목표 금액(53억6000만달러)을 이미 훌쩍 뛰어넘었다. 지난 8월 유럽 폭스바겐으로부터 수주원대의 배터리 시스템을 수주한 것이 대표적인 성공 사례다. 벤츠, GM과 스텔란티스 등 주요 고객사의 수주 비중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추세다.

특히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해외

투자유치도 이끌며 현지 공략에 힘을 싣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최근 해외 금융기관 7곳으로부터 북미 전동화 신규 거점 구축을 위한 투자 자금 9억4000만달러(약 1조2200억원)를 확보했다. 이는 현대모비스의 해외 첫 그린론(Green Loan)으로 미래 모빌리티 핵심 분야인 전동화 사업도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주요국의 통화 긴축 기조와 시

장금리 상승 등의 악조건 속에서도 글로벌 전동화 시장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 받아 저금리로 장기차입(만기 10년)하는데 성공했다. 공적 수출신용기관인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신용 보증도 원활한 자금 조달에 한몫했다.

이번 자금조달은 현대모비스의 해외 첫 그린론이다. 그린론은 전기차·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사업 용도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현대모비스는 지난 2021년 국내에서 친환경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녹색 채권을 발행한 적이 있지만 해외에서 친환경 사업 투자를 위해 그린론으로 자금을 조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글로벌 금융기관들도 환경·사회·지배구조(ESG)를 강화하는 추세에서 그린론으로 자금을 조달하면 유리한 금리 조건이 가능하고 친환경 기업 이미지도 부각될 수 있다.

현대모비스는 이번에 확보한 자금을 북미 전동화 부품 공장 건설에 투입할

예정이다. 현대모비스는 지난해 북미 전동화 신규 생산 거점 구축을 위해 올해부터 2030년까지 총 13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앨라배마와 조지아 등 4곳에 배터리시스템(BSA)과 구동시스템(PE)공장을 지어 글로벌 전동화 시장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자금 조달로 현대모비스는 북미 지역 전동화 사업을 계획한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현대모비스는 현재 전세계 9곳(국내 6곳 포함)에서 전동화 부품 생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 추가로 국내와 북미, 인도네시아 등에서 6곳에 추가로 전동화 생산 거점을 구축하고 있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미래 모빌리티 기술 전문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전동화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전동화 부품의 중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이달부터 5G폰도 LTE 선택 가입... 내년엔 3만원대 5G요금제 출시

과기정통부,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LTE 단말 이용자도 5G 요금제 가능 SKT, 이달부터 요금제 자유 확대

당장 이달부터 5세대 이동통신(5G) 스마트폰에서 LTE 요금제를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내년에는 4만원대 중후반에서 시작하는 5G 요금이 3만원대로 내려간다.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계부처 합동 비상경제장관회의의 논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이용자에게 특정 요금제 가입을 강제하는 불합리한 제한을 개선한다. 그동안 이통3사는 5G 스마트폰 단말로는 5G 요금제만 가입 가

능하도록 제한해왔다. 과기정통부는 법 개정이 아닌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협의했고, 이통3사 모두 이용약관 개정을 통해 5G 단말 이용자는 LTE 요금제를, LTE 단말 이용자는 5G 요금제에 가입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저가 5G 요금제 선택권 확대

SK텔레콤이 가장 빨리 나서 이용약관 개정과 전산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이달부터 요금제 선택의 자유가 확대된다. 다른 통신사는 이후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1분기 내 3만원대 5G 요금제가 신설될 수 있도록 이통3사와 협의했다. 현재 4만원대 중후반인 이통3사의 최저구간 5G 요금을 3만

원대로 하향하고, 2~3종에 그친 30GB 이하 소량 구간 5G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세분화 한다.

이뿐 아니라 이통3사는 저가(3~4만원대)·소량(30GB 이하) 구간에서도 청년 5G 요금제를 내놓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구간 요금제에서도 데이터 제공량이 일반 요금제 대비 최대 2배 늘어나고, 로밍요금 50%할인, 커피·영화쿠폰 등 부가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엔 신설되는 저가 5G 요금제가 알뜰폰에서도 제공될 수 있도록 이통3사와 협의할 계획이다. 중저가 단말 종류도 늘어난다. 과기정통부는 제조사와 협의를 통해 연내 2종에 불과했던 중저가 단말기가 내년 상반기

30만~80만원대 가격으로 3~4종이 나올 수 있도록 했다.

◆25% 할인 사전예약기능 도입

과기정통부는 2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선택약정을 이용자 신청을 받아 1년 단위로 자동 갱신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예약 기능을 내년 1분기 내 도입한다.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은 이용자에게도 이에 상응하는 통신 요금 할인(25%)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약 2600만여명이 이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2년 약정 시에 비해 25% 요금 할인 혜택은 동일하게 유지되도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은 절반 수준으로 낮출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이용자가 잊지 않고 요금 할

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총 4회에 걸쳐 발송 중인 약정만료 안내 문자에 제약성 신청 URL을 포함하여 이용자가 보다 편리하게 제약성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통해 요금제·단말기 선택권을 대폭 확대하고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 체계로 개편해 나가므로써 국민의 통신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덜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며 "신규 통신 사업자, 알뜰폰 사업자 육성을 통해 통신시장의 과점 고착화를 개선하고 본원적인 요금·서비스·설비 경쟁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9월 경상수지 54억2000만달러... 5개월 연속 '흑자'

상품수지 74억弗... 6개월 연속 흑자 수입, 서비스수지 적자 31.9억弗

9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54억2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5개월 연속 흑자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회복되고, 유가 하락으로 수입이 감소한 영향이다. 경상수지란 국가간 상품, 서비스의 수출입과 함께 자본, 노동 등 모든 경제적 거래를 합산한 통계다. 한나라의 기초체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로 구성된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지난 9월 경상수지는 54억2000만달러(약 7조1100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지난 4월(-7억9000만달러) 적자에서 5월(19억3000만달러) 흑자로 돌아선 이후 5개월 연속 흑자다. 다만 1~9월 누



부산 남구 신선대(아래) 및 감만(위) 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쌓여있다. /뉴시스

적 경상수지는 165억8000만달러 흑자로, 지난해 같은 기간(257억5000만달러)과 비교해 65%에 불과한 수준이다.

항목별로 보면 상품수지는 74억2000만달러로 6개월 연속 흑자흐름을 이어갔다. 2021년 9월(95억4000만달러) 이후 가장 큰 흑자 폭이다.

상품수지를 부문별로 보면 수출은 1

년전보다 2.4%(13억5000만달러)감소한 556억5000만달러로 집계됐다. 반도체(-14.6%), 화학공업제품(-7.3%), 석유제품(-6.9%) 수출액이 여전히 1년 전에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감소 폭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수입은 14.3%(80억2000만달러) 줄어든 48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에너지 수입 가격이 하락하면서 원자재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20.9% 감소했다. 원자재 중 가스수입은 63.1%, 석탄과 원유는 37%, 16.2% 줄었다.

여행·운송·지식재산권 사용료 등의 거래를 포함한 서비스수지는 31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지적재산권수지는 8월 4000만달러 흑자에서 9월 6억7000만달러 적자로 돌아선 영향이다. 여행수지는 8월 11억4000만달러 적자에서 9월 9억7000만달러 적자로 적자폭이 줄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외환시장 연장시간에 거래하면 '인센티브'

정부, 은행간 시장관행 등 개선 방안

내년 7월부터 외환시장 폐장시간이 기존 오후 3시30분에서 익일 새벽 2시로 연장된다. 정부는 연장 시간대 거래에 대해 외환건전성부담금을 감면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를 추진한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외환당국은 최근 발표한 '은행 간 시장 관행 및 인프라 개선방안'에 이 같은 인센티브 지원책을 담은 등 최종안을 가다듬을 예정이다.

외환당국은 지난달 18일부터 국내 외환시장에서 거래를 희망하는 외국 금융회사의 등록을 접수받고 있다. 내년 1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가고, 같은 해 7월 개장시간을 익일 새벽 2시까지 연장해 정식시행할 계획이다.

문제는 외환시장과 달리 채권·주식시장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오후 3시30분

에 종료되는 데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연장시간대(오후 3시30분~익일 새벽 2시) 외환거래가 당초 예상보다 저조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해외 외환시장에서 이뤄지는 있는 원·달러간 차액결제선물환(NDF) 거래를 흡수하기 위해 시장조성 역량이 선도는행을 선정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선도은행 선정 시 시장호가 조성 거래 및 연장시간 내 거래에 가중치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외환건전성부담금(10~60%)을 감면해주는 방식이 거론된다.

물론 시장교란 의심거래는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시장교란 의심거래란 짧은 시간 내 동일 환율로 매수·매도를 반복한 거래를 뜻한다.

기재부·한국은행은 시장참가자로 구성된 행동규범 자율준수위원회를 신설할 방침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